

# 정산, 최비의 마흔여덟번째 이야기(2022년 9월)

한국에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증상이 감기 정도라지만 사망자 또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더 조심해야 할 듯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역자님의 교회와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도 코로나가 거의 안정되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사역적인 제한이 거의 없어져 이전보다 좀더 활발히 사역할 수 있게 되어 감사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속히 전세계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안정화 되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 ▷ 정산 선교사의 사역은..

### - 쿠칭 화교교회 사역

코로나가 안정됨에 따라서 사역 또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 사역과 수요일예배 설교 그리고 요한316부(청소년, 대학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좀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마음 속으로 항상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그저 참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중국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화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 정산, 최비의 마흔여덟번째 이야기(2022년 9월)



특히 요한316부의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더욱더 간절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 예배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찬양 또한 열정이 떨어집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왔던 젊은 친구들에게 저의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흘러서 이들에게 넘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의 찬양팀 지도와 찬양인도를 통해서 따부안 자야 화교 교회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찬양팀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10월 2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 새신자 성경공부를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새신자 성경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 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감사가 흘러 나옵니다.



10월 2일에 있을 세례식 가운데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 또한 임하길 기대합니다.

## - 이반족교회 사역

한달에 2번(주중, 주일) 섬기고 있는 이반족 교회 사역은 7월부터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반족 교회의 여러가지 상황과 저의 한국 방문 일정으로 이반족 교회 사역을 연말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다시 이반족 교회 사역을 이어가려 합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말레이어를 좀더 공부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이반족 교회의 찬양단을 세우는 것이 저의 사역의 중점인데 2023년 한 해동안 찬양단이 자체적으로 세워져서 교회 예배를 잘 이끌어 가길 기대합니다.

계속적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찬양단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지 않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산, 최비의 마흔여덟번째 이야기(2022년 9월)

## ▷에녹(흰옷), 에덴(파란색옷)은...

에녹, 에덴이는 감사하게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는 학교 친구들과 좀더 가까워져 주말이 되면 학교 친구들과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에덴이도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나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열심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7월에 한국에서 자녀 진로 상담을 해주시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께서 쿠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하고 좀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에덴이도 개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에녹 에덴이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 ▷한국에 잠시 방문합니다.

2019년 2월 말레이시아로 사역지를 옮겨 온 후 거의 3월 8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저는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이들의 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11월 20일부터 조금 늦게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업무 및 후원교회 방문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지를 소개하고 저희들의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아직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서 저의 카톡(아이디jungsan91china)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입국 후 한국 번호를 개통하는 대로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정산, 최비의 마흔여덟번째 이야기(2022년 9월)

♡ 두 손 모아 주세요.

1. 쿠칭의 화교교회 사역(중국어 설교, 요한316부, 찬양 인도 및 찬양팀훈련, 새신자 성경공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2. 10월 2일(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통해서 새신자 성경공부를 받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굳건해 지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3. 시골의 이반족 교회 찬양팀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세워 주소서.
4. 중국어, 말레이어 두 가지 사역언어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5. 에녹(16세) 에덴(14세)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카톡 아이디 jungsan91china

말레이시아 쿠칭전화 국가번호(60) 11-5138-7531

이메일 주소 andrew1976@naver.com

말레이시아 사라왁 쿠칭에서 정산, 최비, 에녹, 에덴 드림